

올 여름 휴가길, 연안여객선으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 해양수산부, 7.25(금) ~ 8.10(일)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금)부터 8월 10일(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토)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mtis.komsa.or.kr) 및 모바일 앱 ‘해양교통안전정보’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일부 장비 교체·수리 등 총 315건의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312건을 시정하였고, 남은 3건은 특별교통기간이 시작되는 7월 25일 전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여름 휴가철은 장기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어 많은 피서객들이 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044-200-5733)

- 개요 * 특별교통대책기간 : '25. 7. 25. (금) ~ 8. 10. (일) / 17일간
 - (목적) '25년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연안 교통체계 구축·운영 및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
 - (이용예측)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98개 항로(141척)에서 약 847천명이(일평균 약 50천명) 이용, 8.2(토)에 최다 이용 예상(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석)
- 주요 내용
 - ① 여객선 운항 확대
 - (중선·중회) 평시 대비 ①운항척수* 132척→141척(6.8% ↑), ②운항횟수 12,537회→13,624회(8.7% ↑), ③이용객수 824천명→847천명(2.8% ↑)으로 증대
 - ② 안전관리 방안
 - (여객선 특별점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지자체 및 해경, 국민안전감독관 등 민·관 합동 여객선 특별점검* 실시(6.30~7.11)
 - (전기차 화재 대응) 카페리선·차도선 선적 전기차에 대한 화재 대응을 위해 선원·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24)
 - ③ 다중이용시설·시스템 관리 강화
 - (시설·시스템 점검) 접안·승하선 및 편의시설 집중점검 및 전산시스템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사전 특별점검 실시(지방청, 해운조합, 공단 등, ~7.24)
 - ④ 이용객 편의·서비스 제고
 -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운영
 -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운영
 -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를 터미널 전광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
 - (예매 편의 증진) 카카오·네이버 등과 연동한 간편 회원가입, 결제 편의 증진 및 사용자 친화적 화면 등의 新 예매시스템(25.4월 개편) 운영
 - (터미널 혼잡정보 제공) 10개 지역 여객터미널의 차량 밀집현황 및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 영상을 SNS에 서비스
 - (주차편의 증진) 주차장이 혼잡한 터미널의 임시주차장 추가 확보(총 450대 규모)